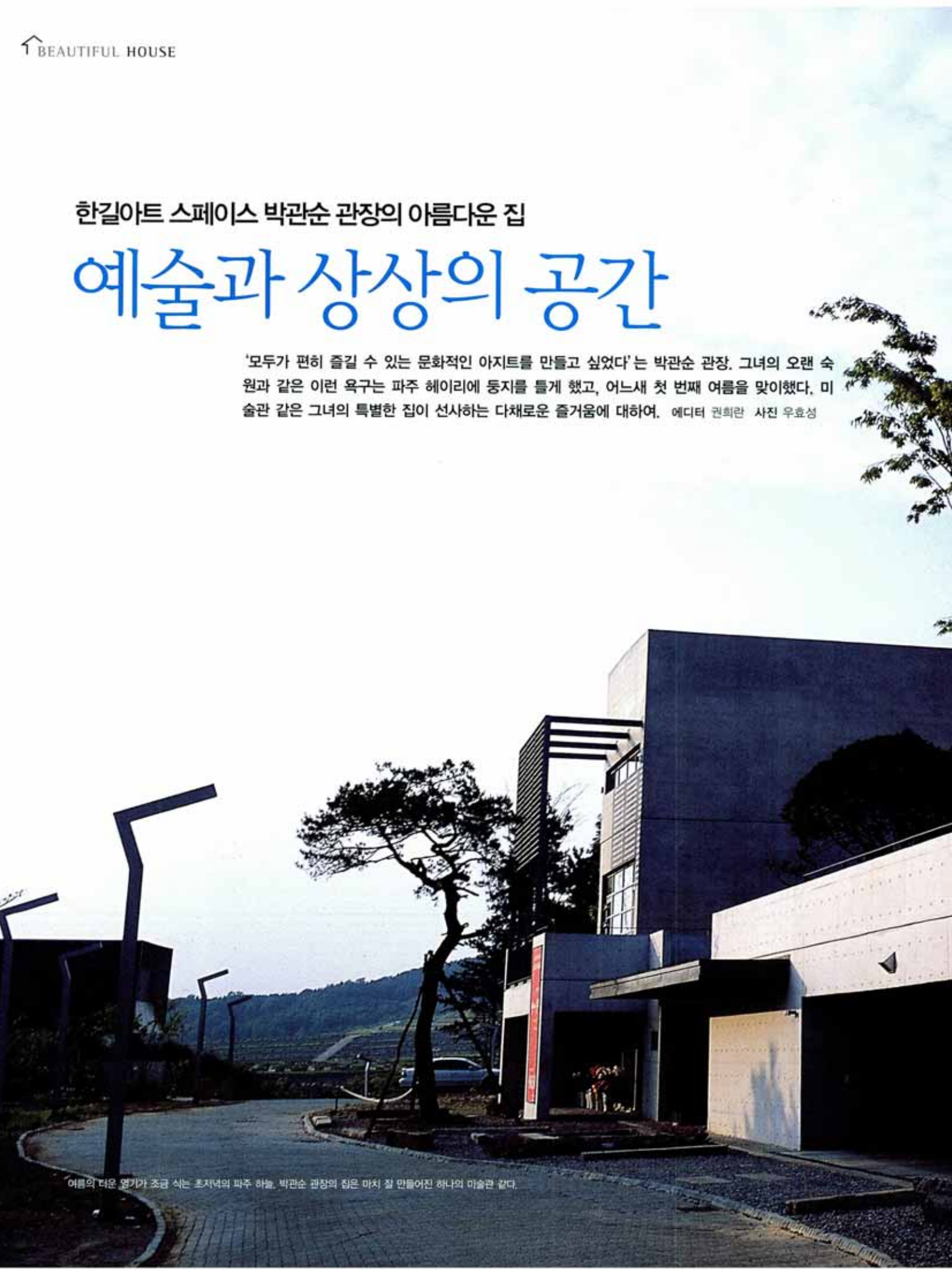
한길아트 스페이스 박관순 관장의 아름다운 집

예술과 상상의 공간

'모두가 편히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아지트를 만들고 싶었다'는 박관순 관장. 그녀의 오랜 숙원과 같은 이런 욕구는 파주 헤이리에 둥지를 틀게 했고, 어느새 첫 번째 여름을 맞이했다. 미술관 같은 그녀의 특별한 집이 선사하는 다채로운 즐거움에 대하여. 에디터 권희란 사진 우효성



여름의 더운 열기가 조금 식는 초저녁의 파주 하늘. 박관순 관장의 집은 마치 잘 만들어진 하나의 미술관 같다.

1 2층 거실에서 카페로 가는 연결 통로. 손님이 많을 땐 이곳을 개방하기도 한다. 2 외국 작가의 작품이 걸린 갤러리 같은 거실. 현관에서 가까운 거실 부분이다. 3 데크 쪽에서 바라본 거실. 야외에서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다. 4 침대와 흔들 의자 그리고 콘솔만 있는 안방. 거실과 마찬가지로 탁 트인 야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한국은 제 고향이고 저와 같은 문화와 역사를 지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 있어도 항상 생각나고 막상 돌아오면 정이 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때때로 영국의 집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마음껏 노래하고 부서져라 피아노를 치면서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음악에 심취하고 싶을 때가 바로 그런 경우죠.
물론 지금 있는 집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경기도 파주의 헤이리 예술 마을은 전체가 푸른 숲과 연못 그리고 교각과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커다란 '갤러리' 같은 곳이다. 길마다 표지판이 있고 건축물도 각기 독특하고 개성이 살아 있어 찾는 목적지를 금세 발견하게 된다. 그중에 서점과 카페, 갤러리가 한데 모여 있는 주택이 있으니, 바로 한길아트 스페이스 박관순 관장의 스위트 홈이 그곳이다. 언뜻 보기엔 갤러리나 사무용 공간의 건물 같지만 현관을 열고 들어서면 느낌이 달라진다. 서울대 건축학과 최두남 교수의 작품이기도 한 이 집은 현대적인 구조와 짜임새 있는 공간 분리,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긴 곳이기도 하다.

"최두남 교수님이 저희 부부의 의도를 아셨는지 생활 공간과 갤러리, 카페가 있는 상업 공간을 잇는 연결 통로를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하셨더군요. 집을 지으려면 산을 전부 깎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산을 깎되 일부만 콘크리트로 마감하고 대부분 뒷산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정신세계 속에서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최 교수님의 가치관이 그대로 담긴 집이기도 하죠. 자연과 빛 그리고 인간의 모든 현상을 이해한 공간이라는 말이죠."

인간을 위한 가장 예술적인 공간 박관순 관장은 2년여에 걸쳐 건축된 이 집이 마음에 꼭 드는 눈치다. 지난 97년부터 예술인들의 마을을 만들자 해서 남편인 한길사 김언호 대표와 다양한 예술계 인사들과 만남을 가질 때 박 관장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왜 한국에는 영국의 헤이온와이 같은 곳이 없는 걸까. 그냥 편하고 조용하게 책을 읽거나 미술품을 감상하거나 사람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이런 그녀의 꿈은 차츰 현실이 되었고 파주에 예술 마을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박관순 관장이 말한 헤이온와이는 영국 웨일스 지방의 나지막한 구릉에 묻힌 곳으로, 40여 호의 작은 마을 전체가 현 책방인 색다른 지역이다. 해마다 5월이면 문학과 책의 축제인 '헤이 축제'가 열리는데 이 기간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곳을 찾는다. 헤이온와이를 배경으로 한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라는 책이 발간될 만큼 전 세계 문화 예술인과 북 마니아들에게 잘 알려진 명소인 것.

"헤이온와이 같은 편안한 장소를 만들자고 해서 지금의 파주 헤이리 아트 밸리가 만들어진 거죠. 원래 사무실과 주택이 모두 서울에 있었는데, 이곳에는 조금 다른 컨셉트로 서점과 카페, 갤러리를 내고 집도 지었어요. 저희 부부가 모두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긴 책꽂이를 거실 벽에 설치했습니다. 거실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여러 분야의 손님들이 찾았을 때 따로따로 대접하는 데 수월하죠."

그녀의 말처럼 거실의 중앙에는 미술 작품이 걸린 화이트 월이 마치 작은 갤러리의 내벽처럼 공간을 분리하고 있다. 집에서조차 그림을 즐기고 예술을 감상하려는 것일까. 일반 가정집이라면 대형 TV가 걸리거나 오디오가 설치될 만한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 그저 한 점의 그림만 있을 뿐. 거실 끝쪽에는 벽난로가 있어 자칫 지겹고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공간에 활기와 따스함을 전달한다.

박관순 관장은 주로 벽난로 앞의 소파나 카펫에서 책을 보면서 시간의 여유로움을 즐긴다고. 내부 전체가 화이트로 마감되어 조금은 삭막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통창 사이로 이내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야외의 초록빛 정원이 와닿아 그런 우려는 노파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3층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천장이 높아 자연광이 깊숙이 들어오는데, 연료비 절감에도 아주 좋다고 귀띔한다.

"될 수 있으면 벽이 많게 설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거든요. 장식적인 요소가 지나치면 집에

1 3층의 긴 복도. 이곳 벽면에도 여김없이 예술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2** 한길사의 양장본과 박관순 관장이 즐겨 보는 책이 가지런히 꽂혀 있는 거실의 책꽂이. 창문 너머로 대나무 숲이 보여 사뭔한 느낌을 준다. **3** 헤이리 예술 마을을 돌아보다 지치면 이곳 HAS II 카페를 찾아보자. 자연과 탓닿아 있는 흔치 않은 공간이다. **4** 거실 창문으로 조금 보였던 뒤뜰의 대나무 숲. 식막한 콘크리트 벽에 생기와 편안함을 전해준다. **5** 한길아트 스페이스 박관순 관장. "문화 예술적인 사업에 귀를 기울이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성해낼 수 있어요." 오랜 시간 파주 헤이리의 예술 마을을 가꾸며 터득한 진리이기도 하다.

"방은 그리 넓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대신 거실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어야 하죠. 전 사람들과 얘기하고 차 마시고 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조만간 이 집도 큰 전시를 할 때에는 갤러리로 활용할 생각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한쪽에서는 책도 보는 그런 곳으로 말이죠. 파주의 헤이온와이 같은 곳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있는 물건들이 온통 잡동사니로 보이니까 최대한 깔끔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카페로, 3층에서 갤러리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어 항상 외부 손님들과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들의 요구 사항도 들어주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 의미가 제대로 맞는 집이 된 것 같아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다' 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그녀의 집은 헤이리 예술 마을의 넓은 단지 전경과 푸른 하늘, 그리고 아침마다 지저귀는 새 등 천혜의 자연이 언제나 함께 있는 동화 같은 공간이다. 대지 면적 230평의 드넓은 초원에 만들어진 박관순 관장의 보금자리. 노출 콘크리트로 외벽을 마감해 밖에서 봤을 때 신비감이 더욱 증폭되는 특성을 지녔다. 겉에서 볼 땐 거대한 시멘트 구조물 같지만 내부에는 그림과 책과 가족이 있는 '따뜻한' 집이다. 집을 완공하기까지 오랜 기다림과 힘든 건축 과정이 있었기에 박관순 관장에게 이 집은 더욱더 애착이 가는 곳이다.

"방은 그리 넓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대신 거실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어야 하죠. 전 사람들과 얘기하고 차 마시고 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조만간 이 집도 큰 전시를 할 때에는 갤러리로 활용할 생각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한쪽에서는 책도 보는 그런 곳으로 말이죠. 파주의 헤이온와이 같은 곳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름다운 물건, 그녀의 헤이리 보금자리

박관순 관장은 평소에도 집 자체보다 집 밖을 꾸며주는 야외 공간을 선호했다. 자신의 기호에 맞춰 파주 헤이리 집은 야외 데크와 정원이 굉장히 넓다. 또한 8인용 식탁과 간편한 헬스를 즐겨도 좋을 2층 야외 데크는 주방과연결되어 있어 더운 여름 밤에 조촐한 파티를 열기에 안성맞춤이다.

"아직은 잘 꾸며지지 않아 데크가 썰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뭔가 잔뜩 갖다 놓고 복잡하게 꾸밀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구조물이 가진 아름다움이 가려지니까요. 건축물만이 가진 미학적인 요소를 줄이고 소멸시키는 건 세월의 잔해가 아니라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렸죠. 괜히 여러 가지 소품으로 장식하려다 오히려 자연 경관을 해치거나 집이 가진 원래의 의미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녀가 가진 이런 생각은 갤러리의 인테리어에도 영향을 미쳤다. 3층 복도와 연결된 갤러리는 공사가 덜 끝난 듯한 미완성적인 특성을 지녔으며, 외부의 환경과 빛이 자연스레 들어오는 창문 또한 멋스럽다. 이 멋스러움은 집이 주는 구조뿐만 아니라 계절이 바뀔 때마다 느낄 수 있다. 가령 눈이 오거나 비가 내릴 때 거실의 통창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와 소복이 쌓인 눈을 바라보는 시간은 파주 헤이리 집이 그녀에게 선사한 선물인 것. 듣는 것, 보는 것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 집이야말로 박관순 관장에게는 여느 훌륭한 미술관 못지않은 곳이다.

"파주에 집을 짓고 살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그동안 미술 전시며 출판이며 이리저리 비즈니스를 하느라 시간에 묻혀 살았던 과거의 세월을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는 자조도 해봅니다. 이렇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이 집이 저에게는 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무거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집은 그만큼 특별합니다."

자신의 집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안한 쉼터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박관순 관장. 왠지 그녀의 바람이 금세 현실로 이루어질 것만 같다. 그녀의 집은 그만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녔으니까.